

I. 환영(Welcome)

- 한주간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 추석명절 중 가족과 함께 지내며 생긴 에피소드를 함께 나눠봅시다.

II. 경배와 찬양(Worship) 구원으로 인도하는(찬 521장)

1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 짐을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2절: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후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III. 말씀 읽기(Word) 마태복음 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IV. 적용 나눔(Sharing) 은혜 받은 것과 내 삶에 실천(적용)할 것

- [내 삶의 지향점 돌아보기] '행위'와 '은혜'의 선택**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야 인정받는다'는 율법적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설교에서는 내 행위나 도덕(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길이 '넓은 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근 나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 의무감(내가 무엇을 해야 함)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루심)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 [좁은 길에서의 영적 싸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끝이 아니라,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바울 사도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편안함(안일주의, 실리주의)에 미혹되거나 마귀의 불화살에 흔들렸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 내가 일상(회개, 기도, 말씀, 섬김 등)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포기해야 할 세상의 '넓은 길'의 요소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공동체와 나눔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장** "목회자와 주님의 가장 큰 보람은 성도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으며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예배당만 오가는 단계(문만 통과함)를 넘어, 훈련과 양육을 통해 내 인격이나 가치관이 실제로 변화되었음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아직 좁은 길을 걷기에 벅겁거나 지쳐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눕시다.

IV. 사역(Work) 서로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중보기도

1.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적용)할 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2.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V.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마무리 / 교회소식, 봉헌, 주기도문

신중 복음가, 1919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눅 13:24)

부르심과 영접

TELL ME THE STORY: 8.7.8.7.8.7.8.8.REF.
J. R. Sweney(1837-1899)

조금 빠르게

1. 구 원으로 인도 하 는 그 문은 참 좁 으 며
2. 이 세상의 많은 사 람 큰 문으로 들어 가
3. 구 원의 문 열렸 으 니 주 의 공로 힘 입 어

생 명으로 인도 하 는 그 길은 참 험 하 니
넓 은 길로 갈 지 라 도 멸 망으로 끝 나 니
주 저 말고 들어 가 서 생 명길로 갑 시 다

우 리몸에 지 워 있 는 그 더 러운 죄 짐 을
세 상 헛된 부 귀 영 화 모 두 내 어 버 리 고
구 원의 문 닫 힌 후 엔 들 어 가고 싶 으 나

하 나 없 이 벗 어 놓 고 힘 써 서 들어 갑 시 다
주 의 말 씀 순 종 하 여 그 생 명길로 갑 시 다
한 번 닫 힌 구 원 의 문 또 열 려 지 지 않 으 리

구 원으로 인도 하 는 그 좁은 문 들어 가

영 생으로 인도 하 는 그 생 명길 갑 시 다